

# 유기적인 결속과 적극적인 참여를...



〈韓泰熙 전임회장〉

공사 다망하신중에도 이번 정기총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사 대표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전산화를 촉진하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지난 87년4월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설립되었고 오늘로 4번째의 정기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협회는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정보통신산업의 활성

화라는 당면과제를 위해 전국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정보마인드 확산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정비,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등 회원공동의 권익창출과 이익대변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협회는 국내는 물론 국제표준이 시급히 요구되는 EDI를 조기에 확산시키고자 작년 7월 'EDI연구협회의'를 구성한 바 있으며, 아직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데이터

베이스산업도 'DB산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회가 이처럼 국가 전반의 정보화 확산을 위해 폭넓게 사업을 구상하고 또 계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각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당국을 비롯한 관련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우리 민간업계와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킨 결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치열해져가는 국제시장환경은 결국 국내 통신시장의 전면개방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쳐온 통신시장의 개방이 우리에게만 실로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또 우리의 대처여하에 따라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

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이미 체신부는 정보통신사업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체신부는 법정단체이자 민간업계의 대표기구인 협회가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가 각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는

아직도 미진함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원사들의 유기적인 결속과 아울러 협회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협회가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확산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며,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韓泰熙회장은 지난 89년2월 제3대 회장에 취임, 2년여에 걸쳐 협회 위상정립은 물론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鄭溶文신임회장(우)이 전체 회원을 대표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증정했다.